

사역, 내 작은 벽돌로 하나님 나라 짓는 일

2014년 주님의교회 사역박람회 열려

2014년 주님의교회 사역박람회가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본당 1층 로비에서 4주에 걸쳐 열린다. 7천명이 넘는 매주 출석교인 가운데, 교회의 여러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는 약 16%인 1천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 사역자가 여러 사역팀에 속하여 바쁘게 섬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많은 성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사역의 참여를 통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을 행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이번 사역박람회의 특징은 사역신청자를 바로 은사사역팀에 전달하여 전산 입력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은사사역팀에서는 사역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주별 사역팀을 지원하고, 신청자를 현장에서 전산 입력하며, 봉사원하는 성도들을 상담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사역자 중에서도 계속 이어서 사역할 봉사자는 새로 입력토록 하여, 이름만 남아있는 사역자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함글함글**

날짜	위원회	분과	사역팀	비고
11월 2일, 11월 9일	섬김위원회	봉사분과	주방, 커피봉사, 주차안내, 서점, 도서실, 환경미화, 설만한물가, 결혼예식	
		복지분과	구제, 복지, 호스피스, 녹색, 장애인사역, 사랑나무, 전화상담	복지기획행정, 꿈나무, 어린이집 지원 제외
		문화스포츠분과	미술, 성극, 스포츠, 유소년축구, 사진	기획지원 제외
	목양위원회	예배분과	중보기도	
11월 16일	섬김위원회	국내선교	군경, 농어촌교회, 도시개척교회, 기관, 법조, 의료, 주한외국인, 이미용	행정 제외
		통일선교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선교행정지원은 제외
		해외선교	선교사중보, 비전트립,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미주유럽, 아프리카	행정총괄 제외
	특별위원회	청소년사역원	학원선교, 반가운학교	
		국제교육선교센터	예수친구사역, 12단계	
		상례위원회	상례	
11월 23일	목양위원회	예배분과	예배 1,2부, 안내1,2부, 새벽기도, 통역	세례사역, 성찬준비 제외
		음악분과	찬양대 1,2,3,4부, 주오챔버, 미시오데이, 할렐루야	기획지원 제외
		소그룹분과	은사사역	기획, 행정, 양육 제외
		2030부부	2030부부	
		양육분과	새가족, 가정사역, 양육클래스	기획행정, 피택자교육 제외
		미디어분과	함글함글, 출판홍보, IT행정	
	교육위원회	EM 분과	수요어린이예배, 한국어클래스, 주일어린이예배, 주일예배	하늘꿈학교 제외
11월 30일	신규 신청자와 팀장들과의 만남			소예배실 오후1시

고운 단풍과 함께 한 걷기대회와 바자회



성황 이룬 걷기 대회

제5회 “다문화가족과 새터민 청소년이 함께하는 걷기대회”가 10월 25일 오전 8시 30분에서 11시까지 주님의교회에서 양재천 독방길을 거쳐 영동5교를 왕복하는 6km코스에서 펼쳐졌다.

전교인과 송파구, 하남시의 다문화가족, 하늘꿈학교의 새터민 학생들, 가락본동어린이집 가족, 우

성아파트 주민과 송파구 노인회 등 지역주민과 늘푸른대학 학생 등 232명이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걷기대회 중 재미있는 반환점 경품행사를 펼쳐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었다.

>3면으로

2014년 특집 I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은 두려움을 건디는 것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연한 <단테의 신곡>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의 서사시 <신곡>을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한 연극이다.

서사시 <신곡>은, 삶의 한 가운데서 길을 잃은 단테가 어두운 숲속에서 마주친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영원한 연인 베아트리체를 찾기 위한 여정에 오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국립극장에서 새롭게 해석한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 연옥, 천국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단테는 지옥에서 인간의 모순과 죄악에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연옥을 거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 공감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

까지 하기에 이른다. 자신은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단테에게는 크나큰 변화다. 타인에 대해 무심함이 오히려 큰 죄이며,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무대는 뒤로 향해 경사져 올라가면서 삶의 고난을 보여준다. 지옥과 천국 사이 연옥 공간은 고통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보여준다. 단순한 빛의 공간으로 처리된 천국에서 단테는, 결국 실패와 좌절 일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 자체에서 평화를 찾아야 함을 깨닫고 삶으로 돌아온다. “젊은 날에는 아주 긴 꿈을 꾸었지. 난 지금도 그 끝나지 않은 꿈속에 있다네”란 늙은 단테의 대사가 여운을 남긴다. 이 극에는 타의에 의해 갑자기 희생돼 천국으로 온 ‘소녀’도 등장하는데,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함글함글

교단소식

세월호 참사성금, 1,197교회에서 9억7,000여 만 원 모아

교단 기관지인 <기독교공보>에 의하면, 교단 총회에서 지난해 주 제인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을 위해 관련 모금을 실시한 결과, 10월 16일까지 교단 산하 1,197개 교회에서 9억7,900여 만 원이 모금되었다. 이 기금은 ‘총회 세월호 참사 극복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사회봉사부와 국내 선교부 등 상임부서가 협력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역할을 찾아 다각도로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서는 긴급 구호와 생계비 전달, 트라우마 극복과 힐링 프로그램 등에 기금이 사용되고 있다. 참사 직후 사회봉사부 관계자들은 해당지역의 땅 끝교회 임원들과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단을 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식사와 생필품, 일상생활복 등을 제공했다. 사회봉사부 이승열 총무는 “유가족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세월호대책회의 관계자들을 만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차원에서 어떻게 연대하며 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전국교회가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기금을 다양한 각도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봉사자를 격려하는 데 기금이 사용되기도 했다. 정부 지원을 못받는 잠수사들에게 고기와 과일, 음료수 등 간식을 제공하고, 177일 간 참사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돌본 땅끝교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 70여 명을 대상으로 힐링 수련회를 열었다.

한편 총회에서 마련한 정신적 위상 극복을 위한 대화마당을 비롯해 추모춧불기도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도회, 철야기도회, 신학세미나 등도 지원했다. 기금을 활용한 단기적 계획으로는 올해 성탄절에 가족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전달하는 사업과 세월호 관련 백서 발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5년 프로젝트로 내년 1월 경 안산지역에 ‘치유와 화해의 집’을 오픈해 치유상담과 디아코니아 사역이 추진된다.

함글함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66

節氣(절기)와 祝祭(축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 할 것이며 피리를 불어 여호와와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 할 것이라 (이사야 30:29)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하나님의 役事(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지켜진 날들. 신앙상의 이유로 특별히 정한 축제일. 명절을 의미한다. 종류를 보면 주1회 모이는 安息日(안식일), 매월 모이는 月朔(월삭), 매년 지키는 踰越節(유월절), 七七節(칠

칠절), 喇叭節(나팔절) 등이 있었다. 또 7년에 한번 씩 安息年(안식년), 50년에 한번 씩 지키는 禧年(희년)이 있었다. 히브리인의 절기는 月曆(월력)에 의한 절기, 사건에서 생겨난 절기, 농사와 관련된 절기 등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節(마디 절): 竹(대 죽, 대죽 머리)에 “나아가다”는 의미의 卽(곧 죽)을 결합시켜 “대나무가 자라 나갈 때 생기는 것이 마디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는데 절기, 예절, 절개, 풍류, 절약의 뜻도 있다.

★氣(기운 기): “자연의 바람, 힘”을 뜻하는 气(구름기운 기)와 “곡식,

밥”을 뜻하는 米(쌀 미)를 합쳐 “쌀로 밥 지을 때 솟아오르는 증기의 힘이 기운이다”라는 문자가 되었다. 이외에도 숨, 기상, 계절, 절기의 의미가 있다.

★祝(빌 축): “제사그릇, 제사, 신”을 뜻하는 示(보일 시)에 “장남, 큰 사람”의 뜻을 지닌 兄(만 형)을 결합하여 “신전 또는 제사상 앞에서 만이가 복을 빈다”는 의미가 되었다.

★祭(제사제): “고기”를 상징하는 肉(월육 달 월. 고기 육. 몸 육)과 “손”을 의미하는 又(또 우)와 “제사그릇이나 神(신)”을 뜻하는 示(보일 시)를 결합하여 (고기를 손으로 장만하여 제기에 올리고 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12



말 못하고 듣지 못해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에바다 예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또 다른 말수화로 봉사하는 섬김의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글함글

CBS 기독교 방송 주님의교회 보도

선교비로 연간 40억원을 지원하는 서울 주님의교회

‘섬김과 나눔’ 법인 설립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힘 쏟아



CBS 기독교 방송이 지난 10월 29일 노컷뉴스에서 주님의교회를 보도했다. 아래는 보도내용 전문.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연간 선교비와 복지비로 40억원을 지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을 쏟아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님의교회(담임목사 박원호)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채 정신여중·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교회는 지난 1998년 80억원을 들여 강당을 신축해 정신여중·고에 기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5억

원을 들여 다목적 교육관도 지어 정신여중·고에 기증했다.

특히 주님의교회는 연간 교회 예산의 절반인 40억원을 선교비와 복지비로 지원하며 섬김과 나눔사역에 힘을 쏟고 있다.

박원호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목회는 교회 자체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힘을 쏟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또 “섬김과 나눔은 교회의 근본 뿌리”라며 “교회가 섬길 곳은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다시금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땅이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앞장서 온 주님의교회는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을 설립했다.

서울 주님의교회는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늘푸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회는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늘푸른대학을 운영하며 다함께 노래 부르고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이 취미와 문화생활을 즐기며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래교실과 사군자, 탁구와 에어로빅, 스포츠탄스 교실 등 12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려자(72.서울 송파구 신천동)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갈만한데도 없는데 주님의교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서울 주님의교회는 독거 노인 40여명에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죽과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주님의교회 자원봉사자들은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혼자 사는 어

르신 40여명에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죽과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 주고 있다.

정미란 집사는 “공직생활을 은퇴한 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미숙 집사는 “어르신들에게 죽 배달을 하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운전을 하며 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님의 교회는 또 혼자사는 어르신 100여명을 마천동의 한 경로당으로 초청해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채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섬김과 나눔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주님의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있다.

뉴스 동영상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볼 수 있다.

<http://christian.nocutnews.co.kr/show.asp?idx=3044460>

함글함글

> 1면에 이어

다트 맞추기와 고리던지기를 통해, 안수집사회에서 찬조한 50만원을 재원으로 바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여, 걷기대회에 이어 펼쳐진 바자회 참석을 독려했다.

이날 다트 맞추기에서 중앙을 명중시킨 경우가 4번, 고리 던지기에서 만점인 5개를 성공한 경우가 3번 나와 각각 3천원의 쿠폰을 상품으로 받았다.

통일선교를 위한 전교인 바자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선교 바자회가 10월25일 토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교회 주차장과 제3집회실에서 펼쳐졌다. 이번 바자회는 기증 물품과 각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먹거리, 북한 이탈주민팀의 북한음식(인조고기, 두부밥 등), 농어촌교회와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그리고 해외선교팀 중 케냐팀과 기르키즈스탄팀 코너와 탈북청소년 하늘꿈학교 코너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었으며, 산지에서 직송한 지역특산물과 4주전에 직접 담긴 오미자 엑기스, 건어물(미역, 다시마), 새우젓, 여러 농산물들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약 1,380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새터민들의 생필품 지원 및 북한 결핵제로 본부 등 동일한

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탈북사역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함글함글**

2014년한국호스피스협회 추계학술 세미나

2014년 한국호스피스협회 추계학술세미나가 2014년 11월 1일(토) 주님의교회 주관으로 “호스피스완화 의료에서 윤리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50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주님의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봉사 현장에서 접하는 의료윤리와 법적 쟁점들에 대한 갈등 상황을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해결해 갈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함글함글

겨자씨 베트남 선교헌금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을 고수해 왔다. 특별히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라는 인식 아래 1975년 공산화 이후 남부 지역의 교회들은 교회 폐쇄 및 재산 몰수, 목회자 투옥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2001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점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얻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기독교 포교는 금지되어 있으며, 교회는 정부의 통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베트남 교회를 대표하는 형제 교단인 베트남 복음성회(남부총회)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베트남 선교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우리교회와 베트남 복음성회(남부총회)는 2012년 8월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교육 선교 영역으로 더욱 그 협력과 지원의

영역을 넓혀가며,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부터 시작된 우리교회의 겨자씨 베트남 선교헌금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남부 총회에서 정한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 기준인 월 \$200이다. 하지만, 농촌이나 산간 오지 지역의 목회자들은 이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례를 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남부총회에서는 총회 산하에 있는 월 사례 100달러 미만의 목회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적 형편이 더 어려운 목회자들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후원함으로써 이들의 가정생활과 목회사역 안정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상자는 많으나 재정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우리교회에 이 사역에 동참을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교회가 공감하고 후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파송 선교사인 최화평·김사랑 선교사를 통해서 총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더불어 후원 목회자 및 교회소식들을 파악하고, 총회가 이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며 지원하고 있다.

2014년 9월말 기준 후원 미자립 교회 및 개척교회는 37개이며, 후원 목회자는 총 38인이다. 우리 교회는 2개월에 한번씩 월 \$2,500의 후원금을 송금하고 있으며, 이들은 형편에 따라 \$50 또는 \$100을 지원받고 있다. 아래는 연도별 헌금액과 송금 내역인데 2013년 3월까지의 월 \$2,000을 후원하였고 2013년

4월부터는 월 \$2,500을 후원해 왔으며 2014년 9월말 현재 잔액은 약 3,200만 원이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지원은 남부총회의 미자립 교회 및 개척교회 지원금 중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부총회는 우리교회의 지원금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헌금액 추이를 감안하여 당분간은 월 \$2,500의 규모를 유지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겨자씨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

김용규 안수집사/해외선교 동남아팀장

베트남 선교헌금 연도별 현황 (단위: 원)

	수입 (헌금액)	지출 (송금액)
2010	16,037,000	4,616,000
2011	36,650,600	28,982,363
2012	41,539,000	27,504,268
2013	36,546,360	33,165,837
2014.9.30	21,990,000	26,255,437
잔고		32,239,055



교사힐링데이 두 번째 이야기, 잠든 교사들의 마음을 깨우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26일(주일) 오후 3시 교사힐링데이 두 번째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아기부부터 소년부까지 어린이분과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교역자들이 한 달동안 준비한 특별한 특순이 있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해도’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위십과 율동을 준비했는데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대근 목사님(온누리교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선생님들이 함께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사힐링데이를 통해 어린이교육 목회원의 선생님들이 새로워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보영 목사

간증

학원선교부 야외 세미나에 다녀와서

21일(화) 학원선교부에서 야외 세미나를 창덕궁으로 다녀왔습니다. 문은영 목사님과 인사동에 모여 한해 동안 사랑어머니, 기도어머니로 정신여중고 딸들에게 복음과 사랑 전하는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린후 유혜경 집사님과 신기숙 집사님께서 학원선교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신여중고 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길 소망하는 두 집사님의 고백은 모든 사랑어머니, 기도어머니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가을비는 오늘도 그칠 줄 모르고 내립니다. 맑은 날씨가 아님을 아쉬워하며 점심 식사 후 창덕궁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창덕궁은 자연 지형과 경관을 잘 활용하여 지어진 궁궐로 유명합니다. 특히 후원은 나지막한 언덕과 계곡, 울창한 숲 사이에 세워진 건축물들이 자연과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아름다운 후원에 가을비가 더해져서 관람하는 동안 맑은 날은 느낄 수 없는 이색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아쉬웠던 마음은 감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조선 태종 때 지어져 소실과 복구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잘 보존된 문화유산 창덕궁 관람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 자랄 정신여중고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사랑을 힘써 전하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야외 세미나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홍신영 집사

이웃과 나누는 감사박스

교육목회원, 추수감사절 맞아 이웃 사랑 행사



“이 선물을 받는 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작은 것들을 모아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나눠 드려요. 부디 이 선물을 받고 작으나마 그 사랑을 느껴보기 원해요. 사는 것이 힘들고 걱정이 많지만 편안함을 누리길 기도해요^^ 늘 건강하세요.”

지난 10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교육목회원에서는 지난 한해를 감사로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추수감사 과일과 예물을 특별히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

으로 나눠주고자 감사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일년 동안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고, 3주 전부터 준비한 생활필수품과 여러 가지 물품들, 그리고 요즘 너무나 비싼 과자들을 감사박스에 담아 드렸습니다. 각 반별로 준비된 감사박스에 가정에서 준비한 생활필수품과 과자, 기타 물품을 아름답게 담고 정성 어린 편지를 써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물품과 과일, 과자들이 모여서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성남 사랑마루 노숙센터, 암사2동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랑의 마음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김성일 전도사

주님의교회를 떠나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주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공광승 목사는 주님의교회 온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교회에 부목사 시절을 돌아보면 2009년 1월에 부임하여 청년부 2년, 4교구 2년, 선임부목사 2년 모든 시기에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품어주신 박원호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동거동락했던 부목사님들, 숭선수범으로 섬겨주셨던 장로님들, 사랑으로 섬겨주신 권사님들, 봉사의 자리마다 계셨던 안수집사님들, 제일 많은 곳에 계시는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출신목회자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주십시오.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나라를 향한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라 하십니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녹음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의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주에 오시면 영주제일교회에 들르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공광승 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8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

장로회 여학교 선교사들 중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 다섯 분의 묘역이 있다. 제1대 교장 애니 엘러스, 제2대 교장 헤이든, 교사 안나 밀러, 제6대 교장 그린필드, 제7대 교장 겐소이다.

애니 엘러스는 남편이 별세 후 미국에 살다가 다시 입국해서 정동에서 소천했고, 헤이든은 43세의 나이, 안나 밀러는 38세의 나이에 병으로 별세했고, 겐소는 미국 알링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녀의 유언에 따라 한국에 유해를 묻었다.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일에 앞서, 우선 조선의 열악한 환경에서 병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병으로 쓰러졌다.

1909년부터 장로회 여학교를 맡고 있던 그린필드(M.S.Greenfield)는 아들을 출산한 후 후유증으로 34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그 때의 상황을 그의 남편은 미북장로회 선교본부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아기가 화요일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량의 출혈로 산모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사 선생님들과는 아주 먼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사님들이 왕진 온 뒤에야 저는 그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인은 의식을 잃었고 두 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에 있는 정신학원 제7대 교장 겐소의 묘역

생각할수록 저는 더더욱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토록 서울 선교지부가 그녀를 필요로 하는데 그녀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사랑과 지혜입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그분의 뜻을 알 날이 오겠지요. 저희가 그분의 뜻을 좀 더 완벽하게 알게 되어 더 겸손하게 일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1910.3.2. 그린필드)

이희천 정신여교 교감

코마인터뷰 | 뉴질랜드 살면서 해마다 모교회 방문하는 김은수 권사

하나님 이끄는 길 따라 살기



월만한물가 서점에서 만난 김은수 권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지만, 매년 한두 달 씩 한국에 와서 주님의교회에 출석하는 까닭에 오가며 정답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다.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뉴질랜드에 이민 간 건 22년 전. 한국 방문 길에 이재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와이엠시에이 건물에 있던 주님의교회를 찾은 이래 매년 주님의교회를 찾았고 아예 교인 등록을 했다. 충주호에서 있었던 제3회 전교인수련회 때에도 함께 했다.

뉴질랜드에선 오클랜드 주님의교회에 다니면서,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 뉴질랜드 한국학교 교사

로도 10년 이상 일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웃음치료사, 심리상담사, 마술, 풍선아트, 호스피스 교육 등을 받고 자격증도 땀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이처럼 한국에 올 수 있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음을 깨달았는데, 많은 것을 배워서 뉴질랜드에서든 다른 곳의 단기선교에서든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작년에는 오자마자 베트남 팀 출발 직전에 기적처럼 한 장남은 항공권으로 합류,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올해에는 동해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신화식 목사를 찾아갔다. 딸이 강릉에서 살고 있어 올 때마다 그 교회를 찾는데, 40여 명의 작은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이 앞장서서 전도를 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해마다 모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에 늘 감사하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그이의 나이 예수 일곱, 하지만 배움에 목말라하는 눈빛과 구김살 없는 표정이, 마치 꽃다운 열여덟 처자처럼 젊고 맑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2014년 주님의교회 새생명축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작은 축제

2014년 새생명축제가 11월 9일 주일부터 시작한다. 11월 9일에는 예배시간에 영상광고를 통해 올해 새생명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전도 대상자 카드를 배포한다. 11월 셋째, 넷째 주에는 성도들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이 축제에 초대할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교구별로 노방전도를 통해 이웃들에게 이 축제를 권한다. 12월 둘째 주일, 새생명축제 당일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매년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새식구가 이 축제를 거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으며, 2013년에도 50여 명이 새로 등록을 했다.

함글함글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교회 단신

호산나 무용단 공연

12단계 성경공부 1단계 수료식과 늘푸른대학 기념 공연



10월29일 12단계 성경공부의 1단계 종강 예배에서 호산나 무용단은 무용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날 예배에서 올려드린 몸찬양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부르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선교 무용인 <회개>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희에 넘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선교무용 <영광송>, 우리 민족의 한을 구성지게 담은 경기 아리랑에 맞추어 백의민족의 표징인 흰 수건을 든 여인들이 지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어 진도 아리랑에 맞추어 태극선을 쥐고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수호천사가 나타나 우리나라를 보호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창작무용 <코리아 환타지>로 이어졌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몸찬양을 하는 무용단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일주일 뒤인 11월 4일(화)에는 우리 교회의 대표적 섬김 사역의 하나인 늘푸른대학의 어르신들을 모신 가운데 특강 형식의 공연을 가졌다. 이 공연에서는 궁중에서 태평성대를 빌며 왕비가 추던 화려한 <태평무>와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흥이 넘치는 부채춤 <여인의 향기>, 김소희 명창의 입타령에 맞추어 내면적 감흥을 표현한 <즉흥무>가 추가돼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경희 집사

미시오데이 여주 소망 교도소 공연



미시오데이 선교 찬양대에서는 11월 2일 주일 오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찬양 공연을 가졌다. 여주 소망교도소는 개방형 교도소로, 자주 방문하여 찬양과 사랑을 함께 나누곤 한다. 이날 공연에 대해, 집회와 찬양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함글함글

2014년 하반기 입교 세례식

2014년 10월 26일 주일 3부예배에서 하반기 입교 세례식이 있었다. 이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입교 세례자는 많은 성도와 가족의 축하를 받았다.

입교 김민직 조용명 여수희 이승주 홍진기 박준수 최승연

세례 김세라 김효정 박민정 박양수 박종태 서주형 손태량 송용자 양혜영 윤정아 이병권 이종숙 정연옥 조서형 천주연 김지윤 박정수 송은지 박한옥 수 다 이명선 이민수

교회사역일정

11.13(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25(화): 예친사 종강

11.28(금): 양육클래스 종강

11.17(월): 미래목회세미나, 정기당회

11.28-29 (금-토): 예친사전체 세미나

11.19(수): 12단계 성경공부 2단계 개강